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뉴욕 회당에서 발견된 그라피티 수사 지원 지시

"오늘 이른 시간, 뉴욕시 첼시 차바드 벽에서 혐오 그라피티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저지 시티의 코셔 슈퍼마켓을 겨냥한 치명적인 총격 사건과 함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공격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사건입니다.

이 비열한 행위는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 공포감을 주입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와 증오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비겁한 행동에 맞서 단결합니다.

저는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에 이 불쾌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인을 찾아 법의 최대한도로 책임지게 하도록 수사에 지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자 주 경찰(State Police)이 주 전역의 회당과 다른 유대인 시설에서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 카운티에서 퍼지고 있는 증오와 심한 편견이라는 암과 같은 병적인 현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현상을 마주할 때마다 이를 규탄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